



# 도의회 광장

2021  
**12**  
제80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05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06/08

상임위원회 활동



09

생생 의정활동



10/11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형제섬으로 붉은 해가 떠오른다** 형제섬을 사이에 두고 붉은 해가 떠오른다. 자연은 언제나 그렇듯 정해진 시간을 살아간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을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희망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 사진 한종연

##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맞춘 제도적 지원구조 마련해야

### 예산결산특위, 내년도 예산심사 돌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 15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6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에 맞춰 제도적 지원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세입 여건은 국내의 경제회복, 부동산

거래 활황으로 국세 및 지방세 등 세수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코로나19 방역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취약계층 복지 등에 대한 수요가 상존하고 있어 지출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적극적인 지방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퍼주기식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경영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 지방소멸위험지역 위기 탈출 방안은



#### ▲오대익 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향상 방안은. 제주도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안은 어떻게 수립됐는지. 제주도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방소멸위험지역 위기 탈출을 위한 지원 방안 및 대책은. 학교 다목적당당 건립 지원 의지는. 제주 노인 인구 및 노인 관련 단체와 관련한 견해는. 제주 노인회 총람 발행 지원 계획은.

### 권한대행체제 운영 상황은



#### ▲강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원희룡 도지사 퇴임 이후 권한대행체제 운영 상황은. 현재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평가 및 보완 계획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준비 상황은.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문제에 대한 생각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상황은.

### 제주형 기후예산제도 도입 견해는



#### ▲이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라동)

기후위기 관련 법정 및 자체 중장기 계획 추진 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는. '제주형 기후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제주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화 추진에 대한 견해는. 도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과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강화에 대한 견해는. 종합경기장 발생 다양한 생활민원에 대한 주변 지역 주민 보상 방안 검토 계획은.

### 송악산 일대 훼손에 대한 대책은



#### ▲양병우 의원 (무소속, 대정읍)

송악산 일대 문화재 포함 진지동굴, 격납고, 해안변 등의 훼손에 대한 대책은. 일뜨르비행장 무상사용 토지 등과 관련해 그간 도정에서 이행한 역할과 실무협의체 등 세부계획은. 밭작물 농업인력 문제 및 기계화 도입 방안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리, 통 및 반 구성에 따른 지역 동향은. 태권도 발상지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추진 의지는.

### 출산 장려금 시책 확대 계획은



#### ▲문경운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 자연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 장려금 시책 확대·강화 계획은. 미흡한 공공자전거 사업 운영과 관련해 도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저조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률 및 지급률 개선 방법은. 노형동 주차 문제와 관련해 드림타워의 약속 불이행에 관련한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의 도민 홀대에 대한 대책은.

### 탐라대 부지 활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은



####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

현재 미활용 중인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과 국비 예산 확보 방안은. 2002년 폐관된 서귀포시 현혈의 집 재개소 해결 방안은. 제주4.3 지방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운영 방안과 전국 달력 표기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은. 서귀포항 여객선 운항 실패와 서귀포항 취항 위한 노선 확보 방안은. 제주프리미엄전문점 영업 현황 및 상인회 동향과 저가상품 판매 대책은.

### 기후위기 대비 지하수 관리 대책은



#### ▲김태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기후위기 대비 지하수 관리 방안은. 수자원 및 토양 보호를 위한 환경 친화적 농업정책 전환에 대한 견해는. 인구절벽 초입에 있는 제주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제주도의 미래 지속성을 위한 아동 양육환경 조성 확대 방안은. 고령화 정책 변화와 관련해 제주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노후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의 변화 대응 방안은.

###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문제점은



#### ▲문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개설에 관해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등록과 개설 과정에서 문제점은. 제주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견해는. 제주신화월드 대규모 점포의 저가 상품 판매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계획은.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견해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문제 해결 방향은



#### ▲홍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 결정 타당성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견해는. 협약서 자격 및 사전동의 누락 문제, 향후 해결 방향은. 화북천 옛물길 복원 및 제주시 동지역 동부권역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제주도민을 위한 복지사무 증가에 따른 복지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해 제주도의 견해는.

### 제주공공하수처리장 추진 현황은



#### ▲송창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 효율적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확대 개편 진행 상황과 추진 현황 및 준공 계획은. 환경 보전기여금 관련 대선 후보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는. 친환경 양돈산업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제주형 적정 사육두수 적용 실현 가능성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에 대한 견해는.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안은



#### ▲김대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홍동)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은. 동홍동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동홍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조기 건립 관련 견해는. 제주국립묘지(국립제주호국원) 이장비 지원 필요성과 이에 대한 견해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기관 유지와 제주도 의료법인 및 운영지침 개정 보류 및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는. 공공보건 의료 강화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견해는.

###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활용률 개선은



####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천읍)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 임기 만료 및 만료 예정 기관장 임명에 대한 견해는. 지방공공기관 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사 및 감사 제도 운영 방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활용률 개선 방안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재이용수 시설 활용계획은. 재이용수 적극 활용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방안은. 임업직불제 도입 등 임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은.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견해는



#### ▲정민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삼도1·삼도2동)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결과에 대한 견해는.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범위 확대에 대한 견해는.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행정시 기능 강화와 읍면동 기능 강화에 대한 견해는.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주민 자치회 준비 현황은. 원도심 신성장 거점화 방안 관련 도시 압축 성장 관리에 대한 견해는.

### 제주4·3 배상청구권자 확대 방안은



#### ▲이경용 의원 (국민의힘, 서흥·대륜동)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배상청구권자 확대 방안은.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특별절차 등 4·3유족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처 방안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불수용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미반영된 이후 양 행정시장 예고의무제 관련 지역 국회의원 법률 제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 대도시 특례 인정 대처는



####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무소속, 삼양·봉개동)

제주시의 대도시 특례 적용 관련 제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대도시 승격을 위한 제주도의 준비가 미흡한데 그 사유 및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새로운 제도개선 또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보수 명예직 교육 위원제도 도입 및 본회의 의결권을 교육청으로 제안하는 등 개선 방향 마련 견해는.

### 제주도 인사 관련 견해와 문제점은



#### ▲김희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지연에 대한 협약 당사자 공동 책임 방안은. 개발행위허가시 공공하수도 연계 의무화 방향 선회 사유는. 제주도 인사 관련 본청 9급 공무원 채용에 대한 견해와 현업 및 사업부서의 9급 공무원 배치로 인한 문제점은. 그린뉴딜 일자리 정책 부진과 문제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문제점. 위드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회생 방안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

### 지방채 발행 사업 판단 기준에 대한 견해는



▲박원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림읍)  
2022년 제주도정의 지방채 발행 사업 판단 기준에 대한 견해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경영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 방법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방법 개선 방향은. 폐기물 발생의 환경적 부담 해소 위한 처리시설 확보 준비 상황과 의료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견해는. 농수축산업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 가격하락 대책은.

### 권역별 균형발전 통계 문제와 대책은



▲임정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권역별 균형발전 수준이 나타내는 통계 문제와 대책은. 혁신 정책사업 발굴 위해 서귀포시 발전계획 수립 견해는. 농가부채를 비롯해 경영비·농업인력 대책은. 임대농기계 및 유기질 비료 공급, 요소비료 대책은. 저탄소 농업 추진 문제점과 1차 산업 탄소배출권 발굴 방안은. 강정동 택지개발 관련 주차, 문화, 복지 시설 확보 방안은.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은.

### 제주시, 서귀포시 균형발전 전략은



▲부공남 교육위원장 (제주시 동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지역의 균형발전 관련 인구정책과 연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방향 및 전략은. 인구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 대책은. IB 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축은. 제주도의 교육자치 활성화 관련 교육의원 제도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견해는. 도정과 교육행정간 협치 정도는.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 발달장애인 지원 무장애공원 설치 견해는



▲김경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제주시 동부 발달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설치에 대한 견해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낮 시간 및 단기 거주 시설 활용 24시간 긴급돌봄, 특수보육시설 활용 장애영유아 긴급돌봄 제공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견해는. 발달장애인 균형 발달지원을 위한 무장애공원 설치 견해는. 제주도에 특수교사, 특수체육전문가 등 인력 양성 대책은.

### 제주 미래농업 육성 정책 방향은



▲강성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제주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은. 1차산업 예산의 중요성은. 제주농업 문제점과 혁신 필요성은. 농업 관련 빅데이터 구축과 스마트팜 지원 방향은.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혁신과 마케팅 방안은. 저온저장 시설 등 핵심 기반시설과 산지경매 방안은. 탐나는전 도입에 따른 1차산업 파급 효과는. 노인복지회관 재건축 계획은.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 전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전자회의록▶본회의▶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

### 학급당 학생수 문제 해결책은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형동 읍)  
제주교육의 기본 환경이자 코로나 시대의 최대 방역인 학급당 학생수 문제 해결책은. 제주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사 전공 중심으로 운영돼 미래사회에 대비한 재구조화에는 소홀히 했고, 단편적인 학과 개편으로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데 대책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와 교원 수급문제 해결 등 준비상황은.

### 교육행정 민주화 소통 방안은



▲김태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미래사회의 교육에 대비한 교육행정의 민주화에 대해 정책 설계에부터 결정과정까지의 소통 고리 마련, 교육행정 조직의 정무능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교육정책과 현안 해법 자체가 교육계 내부가 아닌 지역사회로 확대된 상황에서 교육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데 제주도의회, 도정, 도민사회, 도내 대학 간 거버넌스의 소통 방법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

### 제주교육기록관 건립 의견은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천읍)  
 제주도교육청은 물론 학교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기록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관리 방안이 필요한데 제주교육기록관 건립을 제안하는데 의견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학교별 시설설비지도를 작성하고, '제주형 각급학교 시설설비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견해는.

### 폐교재산 실태조사와 관리는



▲**오영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주도교육청의 폐교 재산 실태조사와 관리 대책은. '제주 갈옷'의 우수성에 대한 학교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제주 향토 유산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 고취 방안과 이를 여름 생활복부터 점차 학교 교복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견해는. 초·중·고 학생 대상 등·하교 시 자전거 통학 활성화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성산고, 국립해사고 전환 추진상황은



▲**고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산읍)  
 성산읍 지역 교육환경 종합 개선 관련 성산고등학교 국립해사고로 전환에 대한 추진 상황은. 성산읍 관내 병설 유치원 통합해 연령별 학급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제주국제교육원 동부 외국문화학습관을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허브로 육성해 성산읍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는. 성산고등학교 수영장 정상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은.

### 영어회화 전문강사 채용 합리적 방안은



▲**이경용 의원** (국민의힘, 서흥·대륜동)  
 도내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채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영어회화강사의 교육감 직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 관련 법 개정 등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제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도내 청소년의 무용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무용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대한 견해는.

### 기초학력 정착 위한 정책 방향은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제주 학생 기초학력에 대한 교육감의 인식과 사업성과를 학부모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에 대한 방안과 명품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은. 엘리트체육과 스포츠클럽 간 공존 등 엘리트체육 육성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학생 도박·중독이 증가하는데 대안 방안은. 학교폭력 강도와 다양화에 대한 관리 정책은.

### 도정과의 협업 진행 상황은



▲**김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과의 소통, 도정과의 협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청 조직 운영 관련 격무부서 지정의 필요성은. 학교 산업안전사고 발생 예방과 급식소 조리환경 개선 필요에 대한 견해는. 코로나로 등교일수가 줄었음에도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보복폭행 발생에 대한 대책은. 교육공무직 호봉제 약속과 이에 대한 도입 견해는.

### 도내 특수학급 설치 및 교육균형 발전 방안은



▲**김경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도내 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등 특수교육 전반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과밀 고등학교, 사립유치원 및 미설치 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계획은. 미래 교육을 접목한 읍·면 학교의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실효적인 교육균형발전 방안은.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제주이해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시설배치 현황은



▲**강시백 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  
 지역생산물(용역·물품·공사계약) 우선 구매 추진에 따른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수주 격차 개선 방안은.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시설배치와 유아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해한 상관성이 결여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은. 초등학생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은. 학교평가와 학생평가 지표의 내실화 필요성은. 도교육청 영상영역 영재교육 필요성에 대해.

## I 행정자치위원회

# “보조금 심의위 전횡 막으려면 회의록 공개해야”

### 보조금 1건당 평균 42초, 부실심사 지적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1월 29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올해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보조금심의위) 심의 결과를 도마에 올렸다.

보조금심의위는 최근 6일 동안 3,597건을 심의를 마쳤는데, 이중 2분과가 총 1,800여 건을 심의해 3개 분과 중 가장 많은 심의 건수를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하루 평균 300건꼴이다. 하루에 7시간씩 꼬박 심사했다고 가정해도 1건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42초에 불과하다.

고현수 의원은 "부적정 심의 사유로 실효성 없음, 타당성 결여, 형평성 결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는다."며, "보조금 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의원은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인 점을 거론하며 "관료주의적 시각에서 심의하다 보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은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선정되며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성산읍 지역의 공동체회복 사업이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한 사례를 들며 "강정공동체회복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성산 공동체회복사업은 왜 탈락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보조금심의위 2분과가 6일 동안 1,800건 심의했는데 1건을 심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0.7분에 불과하다. 이래서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하겠냐."고 비판했다.

## 정부 지자체 재정분석 제주 '최하위'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 결과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숙 의원(사진)은 11월 29일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행안부 재정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원인을 캐물으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정 상태의 건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정건정성 △세입·세출 관리 효율을 측정하는 재정효율성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 능력을 판단하는 재정계획성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인 다등급을 받았다. 분야별로 재정건정성 3개 지표 중 1개, 재

정효율성 16개 지표 중 6개, 재정계획성 3개 지표 중 1개를 포함해 모두 8개 지표가 '부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적어도 3개 분야 중 1개 분야라도 '나등급'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모두 '다등급'이라며 모든 걸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 원인을 분석해야 진보된 성과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I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용역의존도 낮추고 정책·사업추진 적극행정 돼야”

### 관행적 용역발주 비판

제주도가 도민건강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만 집중하고 후속조치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25일 열린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은 "왜 이렇게 용역 실태조사를 좋아하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관련 정보들이 이미 충분히 넘치는데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들이 비슷한 문항과 내용으로 되풀이됐다면서 정책과 사업추진 목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남발되는 용역발주를 비판했다.

이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정책을 위한 자료와 도의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자료가 별개여서 도의 실태용역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양영식 위원장도 "행정의 용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면서, 도의 용역만능주의를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기존 행정이 민원인과 의회의 지적에 "용역 중이라고 답하며 회피하는 태도를 우려하며 제주도가 용역 의존도를 낮춰 적극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시대에 맞게 혁신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제주 장애아 보육지원 1억원 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11월 29일 제400회 정례회 중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김경학 의원(사진)은 "도내 4개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46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7개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314명에 대한 보육을 맡고 있어 도내 장애아 보육 관련 지원을 살펴봤는데 운영지원 6곳, 순회상담 3회 등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보

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특수교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 등 3명이 전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리 목적 사업장이 아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안해 마련했고, 자부담을 포함한 예산 1억 원으로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설치해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지역센터를 설립하는데 제주도도 장애아 보육이 상당히 열악하므로 앞으로 제대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아동센터별로 설치하거나 육아지원센터에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하거나 기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I 환경도시위원회

# 한국공항 지하수개발 연장허가 ‘느슨한 행정처리’

## 행정절차 위반 판단 심사 보류

한국공항주식회사의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과정이 매번 비슷한 개선주문을 받으면서도 느슨한 행정처리로 일관, 의회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8월 19일 제주도에 제출된 한국공항의 연장허가에 대한 의회 동의안이 11월 26일 제400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됐다.

이날 도와 의회가 이견을 보인 지점

은 20일로 규정된 먹는샘물 개발·이용 연장허가의 민원처리기간이었다. 도는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지하수관리위원회 절차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전문적 검토’ 절차여서 민원처리기간이 초과되지 않았다고 확신했으나 환도위는 민원처리기간이 초과돼 행정절차가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부대조건도 문제됐다. 2년전 도의회가 허가 연장을 동의하면서 허가완료시점에

임박한 의회심사를 지양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는 이미 24일 허가가 완료된 이후인 26일에서야 실

시됐다. 결국 강성의 위원장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심의절차로 보더라도 민원처리기간이 초과되어 무효인 대상을 상임위가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환도위 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의회 심사는 보류됐다.

## 봉개동 용도변경 협약 비판, 안 좋은 선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1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봉개동 일대 용도변경이 추진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예산을 지적하며, 지난 2018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연장 협약 내용을 조명했다.

고용호 의원(사진 왼쪽)은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용도변경을 협약사항에 포함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봉개 주민 전체가 아닌 일

부 토지주들의 이권이 봉개동을 대표하는 요청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몇몇을 위해 몰아주는 협약”이라고 평가하면서, “자기 이권 챙기겠다는 시도를 행정이 그래도 수용한 것이 문제”라며 강하게 제주시를 비판했다.

김희현 의원(사진 오른쪽) 역시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 여러 문제점을 우려하며 해당 협약내용은 부적절하고 지역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 많은데 다 해주면 될 거 아니냐”면서, “하수처리 민원 등 한두가지 아닌데 이 부분이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I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천연염색 산업 지역 연고사업으로 육성 필요”

## 제10차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 오영희 의원)은 11월 10일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천연염색 산업의 새로운 두드림과 도전을 주

제로 제10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제주관광기념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주천연염색산업 육성 방안 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오영희 대표는 “제주관광기념품 시장은 연간 2조 원이 넘는 잠재력이 풍부한 시장으로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제주관광기념품 시장과 제주천연염색의 현황 및 실태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며, “염색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연고사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용역 보고진은 관광산업의 동향과 관광기념품 시장의 현황에서 2020년 내국인 관광객들의 제주 여행의 주요활동으로 식도락, 맛집 여행(98.4%), 자연경관감상(90.3%), 쇼핑(86.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했으며, 관광산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인 관광만족도와 재방문을 제고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제주지역산업의 균형발전과 고용창출, 지역소득 환류가 가장 높아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제주이미지 제고와 홍보 효과 증대, 제주지역문화의 전승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제주천연염색산업 육성의 정책과제와 활성화 방안에서는 첫째, 명품선정과 명장제도 추진, 둘째, 제주천연염색센터(가칭) 설립의 필요성, 셋째, 제주천연염색 인증시스템 추진, 넷째, 제주천연염색 가치사슬 전문화를 통한 원료 생산, 제품 생산, 유통의 전문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 문화관광체육분야 활성화 촉구

### 의정자문위원회 내년도 예산 편성 의견수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에서는 11월 26일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2021년도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분과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및 문화관광체육분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뿐만 아

니라 의정자문위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으나 도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자문위원들께서 주신 자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문화관

광체육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문화관광체육분야의 사업들이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I 농수축경제위원회

# 사회적경제 조직 통한 돌봄공백 해소 방안 마련 시급

### 제주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간담회



제주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단체가 사회적경제 발전방향 및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도의회 사회적경제포럼과 (사)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 정책간담회가 11월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단이 교수(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는 지역현실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특히 보건복지부 노인 선도사업 사례(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와 지자체 자체 돌봄사업 추진

사례(대전 대덕구)를 소개하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종우 센터장(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사회적돌봄의 필요성과 사회적경제형 사회서비스 모델 추진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정책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 19 여파로 돌봄공백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드러난만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여 공공성과 사회적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제주-전남(무안) 양배추 수급안정 논의 확대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산 월동채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육지부와 공동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1월 25일 강성균 의원은 제주지역 양배추 농가(양배추 연합회 김학종 대표 등)들과 함께 전남 무안지역

을 직접 방문해, 농업인 및 상인들과 함께 겨울 양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제주·전남 공동수급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의제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강성균 의원은 "제주지역에서 독점하던 겨울 양배추가 온난화로 인

해 전남지역에서도 생산되며,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전남지역 양배추 출하 시기가 제주지역 주 출하 시기인 1~3월에도 이뤄지고 있어서 수급안정을 위한 제주와 전남의 공동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I 교육위원회

# 학교와 지역 살리는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

### 한국교육행정학회·한국지방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1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고전), 한국지방교육연구소(소장 나민주)와 제

주교육자치 선도모델 방안 모색을 위한 협약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세미나는 제주 교육자치 15년을 맞이해 제주교육자치 성과 및 제도개선과제를 연구·지원 협력하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획됐다.

협약식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제주형 교육자치 정착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학예 분야 주요사안에 대한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제주교육자치 성과 및 제도개선 과제 연구·지원 협력 △제주교육자치 전문성 강화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제주교육자치 정책 자료 제공 등 정보교환 등 상호 협

력해 나가기로 했다.

세미나에서는 고전 제주대 부총장이 좌장으로 나민주 충북대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 측면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이덕난 박사(국회입법조사처), 황준성 박사(한국교육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여해 제주교육자치 성과 및 현안, 선도모델 방안 모색 등에 관해 토론했다.

부공남 위원장은 "행사를 통하여 제주교육자치의 성과를 진단하여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시대정신으로써의 제주교육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IB 교육프로그램 초·중·고 연계방안 모색

### 표선 시범운영 학교 방문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1월 25일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IB후보학교 운영 현황과 초·중·고등학교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표선지역 IB 후보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표선지역에서는 표선초, 토산초, 표선중, 표선고 4개 학교가 현재 IB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표선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IB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방문하게 됐다.

현장 방문에서는 4개 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도교육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IB 프로그램 운영현황 안내 및 IB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해 건의하였으며, 표선지역 IB학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번 제400회 2차 정례

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해 (가칭) IB 학교 교원 지원 공간 신축 지역(구 하천초)을 방문했다.

I 생생 의정활동 - 조례 소개

# 퇴직 공무원 인원 제한, 감사위 독립성 회복해야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사진·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한다.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감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의 경우 감사위원 7명 중 2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조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한 강성민 의원은, "의회의 감사위원 추천 인원인 2명 모두를 퇴직 공무원으로 추천하면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하나, 감사위원회 내 퇴직 공무원의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다 원천적이고, 근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집행과 그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문제의 발생 유무의 판단과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는 최고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기관보다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본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향후 기관별로 할당된 위원회 추천과정에서부터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죽음의 본질 인식,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배워야

## 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학교장의 책무(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선도학교의 지정 및 운영(안 제6조), 예산지원(안 제7조), 위탁(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표창(안 제10조)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 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바른 인성을 갖춘 교양 있는 사람으로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송창권 의원은 "올해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국가교육 이념과 가치 테두리에서 홍익인간을 추구하는 죽음교육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교육정책의 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사회통합 추구

## 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사업추진 등, 갈등영향분석,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안 제5조~안 제

9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비밀유지,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등 규정(안 제10조~안 제12조), 시행규칙(안 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영식 위원장은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가족들 간에 벌어진 갈등 관리에 매우 부족했다."며, "IB교육프로그램 시범도입(전교조와의 갈등),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따른 교장임용(교총과의 갈등),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학부모와의 갈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관리된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 여성기업인 활성화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 제주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사진·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2019년 제주 전체사업장 중 여

성기업 비중은 43.9%(2019년 통계청자료)로 다수를 차지하며, 여성기업 종사자수는 도내 사업체 전체종사자수 대비 48.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대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고 돌봄위기가 가중되면서, 여성고용

에 심각한 타격이 이어진 상황에서 제주지역은 2021년 9월 고용률에서 전체고용률은 66.5%인데 반해, 여성고용률은 59.8%로 저조했다. 또한 2021년 3/4분기 실업률에 있어서도 여성실업률은 2.9%로 제주 전체실업률 2.6%보다 0.3%p 하락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정책이 디지털·신기

술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되고 비정형 일자리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여성기업 및 기업인의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도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마케팅 추진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한 판로확대 및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 위기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여성기업과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I 함께합시다

신기한 제주어 ⑫

## 고뿔, 곱불

(명사) 감기

<예문>

경헌디 아방은 촉말 환갑 넘도록 살명 혼 번토 빙완에 입원을 후어나도 안후고, 고뿔이나 걸리곡 무신걸 넘어 먹거나 잘못 먹영 탈나는 준벙 말양은 크게 아파본 도래가 웃어십주. 환갑뿔는 그르해부터 혈압이 후품 높으덴 후연 혈압약은 먹엄주마는 그 혼흔 당뇨도 웃어십주.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⑫’에 실린 제주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경헌디: 그런데	웃어십주: 없었지요
후어나도 안후고: 해 본 적도 없고	그르해부터: 재작년부터
무신걸: 무엇을	후품: 조금
준벙: 잔병	높으덴 후연: 높다고 하여
말양은: 아니고는	먹엄주마는: 먹고 있지만
도래: 전례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42일 · 정례회 2회/47일 · 임시회 8회/95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5일 예결위 22일 공휴일 37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 원 선임 ·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8.(금) ~ 6.9.(수)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8월 ~ 9월	제398회 임시회	8.26.(목) ~ 9.7.(화)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 11.3.(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 12.15.(수) (31일)	본회의 8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 12.23.(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8일

## 생활 & 법령뉴스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Q

제 SNS 계정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에도 제 개인정보와 함께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A

어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침해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그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댓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 청탁금지법 Q&A



Q

시 구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내가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번만 못 본 척 하고 위반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어 단속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의 주 정차 단속업무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제6조 위반으로 청탁금지법상의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 제2항제1호) 및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바야흐로 예산의 계절이 찾아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국회에

본격 심사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2022년도 예산안을 약 6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내년도 제주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재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세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가용재원은 감소하고 있어 재원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채권 등 3,350억 원의 지방채도 발행해야 한다.

지방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7일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197명을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만도 총 90억 원에 달한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정리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률은 2018년까지 3%대, 2019년 4.6%, 2020년 4.8%, 2021년 8월말 기준 7.1%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8월 말 기준 총 체납액은 약 870억 원에 이른다.

제주의 지방세 징수율은 2019년 기준 94.8%로 전국 평균 95.4%보

다 0.6%포인트 낮다. 또한 2019년 세외수입 징수율도 74.2%로 전국 평균 84.3%보다 무려 10.1% 포인트나 낮은 실정으로 징수율 제고가 시급하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통합재정수지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은 낮아지고 체납률은 높아지는 추세이다.

재정자립도란 자립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치단체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자주재원이 지자체 행정활동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중요할 것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34.5%, 2019년 33.0%, 2020년 32.9%, 2021년 32.6%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2018년 12.3%포인트, 2019년 11.9%포인트, 2020년 12.3%포인트, 2021년 11.0%포인트 각각 낮은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수치들은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이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더불어 체납률을 전국평균보다 낮추는 다양한 노력, 지출구조조정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현수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제주 해녀 지위 및 삶의 질 향상 노력 필요



‘근면, 검소, 자립, 생명력’은 제주해녀를 대표하는 말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한평생 맨몸으로 바

닷물 속에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면서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삶을 살아왔다. 예로부터 제주도는 ‘돌 많고 바람 많고 여자 많다’라는 의미로 삼다도(三多島)라 불렸다. 특히 제주해녀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알려져 왔다. 즉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고통의 해녀역사는 곧 제주 섬의 설움의 역사로 남겨져 왔다.

물질이라는 고된 삶을 지켜온 제주해녀의 삶을 반영한 ‘제주해녀문화’가 2016년 11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불턱’과 ‘해신당’, ‘잠수굿’ 등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제주도의회는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해녀 권익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해녀의 지위와 삶의 질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해녀문화를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기대보다는 갯녹음 확산에 의한 마을어장 황폐화, 수년째 일본 수출길이 막힌 빨소라 등으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제주해녀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제주해녀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해녀 탈의장 및 불턱을 지켜야 한다. 해녀의 삶과 함께 공동체문화를 형성한 ‘해녀탈의장’과 ‘불턱’이 있다. 불턱을 현대화한 해녀탈의장은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2008년 이후 도내 191곳 가운데 87곳에 대한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로 인해 고층이 날로 심각하다. 또한 전통문화인 ‘불턱’은 과거 230곳이 있었으나 해안가 난개발과 무관심 속에서 점점 사라져서 현재 도내 48곳이 유형문화자원으로 보존되고

있을 뿐이다. 해녀터전인 ‘해녀탈의장’ 및 ‘불턱’을 전통문화로 보존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통해 하루속히 해녀 삶의 터전을 복원하고 보존시켜야 한다.

둘째, 문화유산인 해녀양성을 위한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잠녀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이 요구된다. 해녀문화전승을 위해 2007년에 한수풀해녀학교 설립, 2015년에 법환잠녀학교 설립을 통해 신규해녀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와의 괴리감으로 인해 결국 해녀학교 졸업생에게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잠녀학교에서는 입문반 및 직업양성반으로 구분하여 잠수(물질)기술, 채취기술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이라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도 없이 사무장 1명만 채용하여 해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즉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와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예산과 전문적인 교육인력 확보를 위해 도정에서는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해녀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가 점점 줄어들고, 해녀 고령화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 총 3,613명중 70세 이상이 2,132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도정에서는 젊은 신규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 및 어촌계 가입비 지원 등의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해마다 해녀는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지방차원에서의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녀문화 보전 및 전승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제주해녀문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차 인정받고 제주해녀의 삶이 보다 윤택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태순 농수축경계위원회 의원  
/ 더불어민주당, 아라동

## 부활 30년, 대학생 지방자치 인식 조사

제9회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12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차세대 지역 리더인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의 장인 제9회 2021년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사)제주지방자치학회(회장 김성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도내 대

학생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들의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회로 진행됐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년, 대학생의 지방자치 인식 조사 연구'를 주제로 대학생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정도, 대학생들이 바라는 청년 정책 및 실행방안, 대학생들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시·도의회의장협 제7차 임시회 열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11월 25일 오후 포시즌스호텔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임시회에는 17명의 의장 가운데 좌남수 제주도의회의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제

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전액 국비 부담 촉구안, 대구시의회가 제안한 위드코로나를 위한 '국민문화바우처'제도 건의안, 전북도의회가 제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효과 증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 제주 출자 출연 공기업, 재정 자립도 높여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2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예산안 분석을 통해 출자·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 총액은 2021년 예산액대비 5.9% 감소한 1,789억 원으로, 예산안 총액(6조 3,925억원)대비 2.8%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출자·출연·보조금은 1,056억 원(2.0% 감소),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732억 원(11.0% 감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액

은 879억 원으로 96.8% 증가했다. 특히 출자출연 및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액은 감소(11.0% 감소)했으나, 국비 지원액은 대폭 증가(96.8%)해 대조를 보였다.

좌남수 의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유사 중복 설립은 재정의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출자출연기관은 자생력과 전문성을 강화해 자체수입을 확대하고, 구조개혁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타버스 시대, 민주주의 소통 혁명”

의회 회의 운영 및 주민참여 가능성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11월 1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메타버스 시대, 제주형 민주주의 소통 혁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과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주제발표는 SW정책연구소 이승환 박사가 '메타버스 비전즈, 인간·공간·시간의 혁명'을 주제로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 기술의 현주소와 활용사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사례, ▲경제적·산업적 효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승주 교수, 제주대학교 휴먼인터페이스미디어센터 김동욱 소장, 국회 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 (주)맘모시스 유철

호 대표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김동욱 교수는 메타버스를 통한 주민들과의 소통 가능성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관광 등 타 산업 연계 발전 가능성에 대해, 방승주 교수는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메타의회'의 도입 가능성과 한계를,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민주주의 소통을 위한 지방의회 메타버스 운영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주)맘모시스 유철호 대표는 메타버스 관련 샘플 영상을 통해 실제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다.

좌남수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비대면 문화 확산과 함께, 최근 민주주의 소통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다.”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회의 운영과 민의를 담아내는 주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공·사회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국비 확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11월 22일부터 이틀동안 국회를 방문,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을 찾아 제주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 및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기확보된 1조6,709억 원 외에 제주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는 박호형 예결특위 위원장, 강철남 4·3특위위원장, 김

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구만섭 권한대행,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동행했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전도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2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공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